

건강 상담실

검은 가래 나오고 목이 붓기도 한다

문 저는 18세의 여 학생입니다.

3년전 중학교 3학년때 부터 열이 나고, 밤에는 목이 아프도록 기침을 했고 피가 가래와 섞여 나와 「파스」「아이나」 등을 복용한 후 X-Ray 를 찍었으나 의사 선생님께서는 결핵초기 인것 같다고 하시면서 계속 약을 복용하라고 하시더군요.

그후 약을 계속 복용한 후 (2년 6개월후) 다시 사진을 찍어 선생님께 보였더니 폐가 나쁜것이 아니라 기관지가 나쁘다고 하시더군요.

요즈음은 진회색 혹은 검은색의 가래가 계속 나오는데 흰색의 두부덩이 같은 부스러기가 떨어져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기침은 별로 없고 피로한 후에는 목이 붓기도 하고 입에서는 악취가 심합니다.

저의 병명과 치료법을 알고 싶습니다.

〈청주시북문로 3가 김 수 애〉

기관지 확장 의심 가래 검사 해 보아야

답 귀하께서는 우선 기관지 촬영

을 하여 기관지확장의 유무를 가려 내시어 야 하겠습니다.

한쪽 폐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이 가능하고 양쪽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능 합니다.

이에 대한 진단이 내려질 경우 가래를 받아 가래검사도 하시야 되겠습니다.

기관지 확장증에 대한 예방으로는 우선 감기 안걸리게 하여 2차감염이 안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화의대 흉곽내과 교수 이 기 용〉

몸 전체가 가렵고 약을 써도 안 나야

문 저는 43세의 가정주부입니다. 열 마전 부터 우리 아이들이 몸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저녁이면 가려운 증세가 더욱 심해 마구 긁은탓인지 몸전체가 통통 붉혀 있는 상태입니다.

좋다는 약은 모두 써보았으나 좋은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에 무슨 약을 어떻게 써야할지 선생님의 좋은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전남 보성군 북내면 시천리 윤 봉 립〉

벌레 알레르기를 먼저 제거해야만

답 유치료에 관한 한 섯불리 약처방을 내려 치료할 경우 도리어 해를 입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수가 많습니다.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벌레를 죽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을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벌레에 대한 알레르기를 없애야만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전문의를 찾아 치료할 경우 7~10일이면 완전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를 한담시고 시일만 서서히 풀 경우 도리어 완전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하루속히 전문의를 찾

● 질의 환영 ●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기생충질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문의 이외에도 일반질환에 대한 문의도 환영합니다.

의료계 권위자와 상담하여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으십시오.

〈연세의대 피부과
우태하〉

코피가 자주 나와
백혈병 아닐런지

문 저는 17세의 소년입니다. 2년전 겨울에 갑자기 코피가 나오고, 계속 아침에 세수를 하거나 점심때 세수를 할때마다 나옵니다.

봄과 여름에는 나오지 않고, 늦가을과 겨울에 특히 잘 납니다. 공부를 하는 도중에도 쏟아져 곤란을 당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잇몸에서도 피가 납니다.

여름에는 머리가 아찔하고, 눈앞이 캄캄할때도 있습니다. 앓았다 일어나면 특히 더 심합니다.

혹시 백혈병이나 아닌지요?

〈충남 대덕군 구죽면
윤석호〉

빈혈·기생충증 등
여러가지가 있다

답 귀하의 경우는 우선 내과전문 의의 자세한 진찰을 받아보시도록 해야겠습니다. 잦은 출혈과 어지럼증은 귀하께서 궁급해 하시는 백혈병도 그런 증세를 볼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의 경

우 대개 빈혈, 재생불능의 악성빈혈일수도 있고, 기생충이라던가 간염, 또는 약물에 의한 만성빈혈 일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소년의 경우는 유전성 혈루병을 의심해 볼수도 있습니다.

우선 내과전문의를 찾아서 혈액검사와 자세한 검진을 받으셔야겠습니다.

〈동산병원 원종덕〉

고혈압과 심근경색(心筋梗塞)

고혈압은 정도에 따라 양성(良性), 중간(中間) 악성(惡性)의 3개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양성은 혈이 높다는 것 만이 유일한 병상(病狀)으로서 안저(眼底)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을가 말까 할 뿐이다.

중간형은 신장(腎臟)의 세동맥(細動脈)에 경화(硬化)가 있는 경우가 많다.

악성은 신장·심장·뇌에 모두 증상이 나타난다.

안저검사(眼底檢査)는 고혈압의 진도(進度)를 알아 내는데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이것도 1도에서부터 4도 까지로 나눈다. 예전에는 4도가 되면, 악성화의

증세로서 신장 세동맥의 경화가 심해져 매우 위험하게 생각했으나 오늘날에는 치료법이 개발되어 열심히 치료하면 회복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고혈압이 양성일지라도 뇌졸중(腦卒中)이나 심근경색(心筋梗塞)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흔히 매스컴에서 심장마비라고 부르는 심근경색은 사망률이 높은 무서운 질병이다. 심근경색이 일어나는 이유는 심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冠狀動脈)의 경화 때문이라 하나 아직 불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심근경색의 가장 큰 적(敵)은 불안조조, 미식다식(美食多食), 운동부족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모두 초봄에 주의해야 할 일들이다.